

낮은 처우·교권 추락...현직 교사들 “정년까지 못 버틴다”

전교조, 근무환경 실태조사

81% “교권 침해 보호 못받아”
3명 중 2명 근무 환경 불만족
교사 전문성 향상 제도 미비
“권리 증진 실질적 변화 필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직 교사 10명 중 8명이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 3분의 2는 현재 근무 환경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할 의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8-12일 전국 교사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환경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않다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 중 81%에 달했다.

응답 교사 56%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교사가 홀로 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 교사 3명 중 1명은 새로운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 부족을 호소했다.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가 우선시되는 현실을 지적한 교사는 67%,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 과밀 문제도 심각했다.

학급당 학생수 26명 초과로 인해 수업과 생활 지도가 어렵다는 응답은 49%였고, 법으로 보장된 근무 여건에 대한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는 37%에 달했다. 교사의 근무 여건은 학생의 학습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한 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드러났다.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하겠느냐”는 질문에 38%의 교사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62%의 교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년까지 교직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이유는 △민원·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 △과도한 행정업무 △교권 하락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근무환경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교사의 66.7%가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응답 교사의 절반(50%)이 연가 등을 사용할 때 과도하게 구체적 사유 작성을 요구받았고, 52%는 복무 결재 시 구두 결재를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일 결재 요구, 회의·연수 등 이유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제한되는 등 권리 미이행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가가 법으로 명시한 복무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33.12%에 달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역시 미비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체형관리 스트레칭 배워요”

14일 광주 서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열린 ‘소도구를 활용한 체형관리 프로그램(체형교정 PT)’에 참가한 공직자들이 전문강사로 부터 목, 복부, 종아리 등의 스트레칭을 배우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체 응답자 중 65%는 자율연수휴직, 교사연 구년제 등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보람으로 버티고 있지만, 여전히 과도한 행정업무, 낮은 처우, 교권 약화, 학급 과밀 문제 등으로 인해 교직 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제한하

고,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교사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더 이상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사의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교 관리자들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교사 인권에 대한 의무교육을 정기적으

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이 해소돼야 하고, 이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교육환경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학교 수업 오전에는 예체능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여수 해상서 5m 밍크고래 1마리 사체 발견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14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5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정치망 어장 관리선 A호(24톤) 선주 B씨가 밍크고래 흔적 사실을 신고했다.

A호는 정치망 양망 작업 중 죽은 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한 뒤 돌산계동항으로 입항했다.

돌산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고래 외형에는 작살이나 포경총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수산물관리원 고래 연구센터에 의뢰한 감별 결과, 해당 고래는 암

컷 밍크고래로 길이 약 5m, 둘레 약 2.5m로 측정됐다.

여수해경은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선주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흔히 회피되거나 폐사한 고래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광주교육청, 올 ‘AI미래교실’ 44곳 추가 조성

AR·VR 등 첨단 기술 직접 체험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AI팩토리(미래교실)를 150개 이상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AI팩토리는 학교 공간 재구성을 통해 인플러그드 활동, 코딩, 협업 수업 등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AI팩토리 구축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송정서초등학교 등 총 114개 학교에 구축했으며 올해는 광림초등학교 등 44개교에 추가 조성한다.

학생들은 AI 융합 교육 공간에서 피지컬 컴

퓨팅 도구,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구현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사업에 앞서 지난 12-13일 계수초등학교, 송정서초등학교, 동아여자고등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에서 업무 담당자 110여명을 대상으로 AI팩토리 구축사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사업 대상 학교의 담당 교사 및 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AI팩토리 구축 학교 사례 공유, 실무자 질의응답, 공간 설계·공사 진행·준공 검사

등에 대한 절차 안내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윤주 우산중 교사는 “미래교실 구축 사례와 시설 관련 설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향후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조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AI팩토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교육환경 속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역량을 기르며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스크린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스크린 11실과 부대시설

1F_CAFE & LOUNGE

Fun it, us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